

## 6 기획

# 석면사용 전면금지 7년 ... 우리학교 현황은?

황보종덕 기자 whd9223@knu.ac.kr

학내 건축물 일부에 석면이 남아 있어 석면 관리 방향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석면은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에서 지정한 1군 발암물질이다. 우리나라는 지난 2015년부터 석면 사용을 전면 금지 했다. 그러나 지난 1949년 개교 직후 지어진 우리학교 건물에는 석면이 남아있어 지속적인 관리와 해체 작업이 필요한 상태다. 질병관리청 관계자는 “석면은 건축물이 파손될 시 분진이 내부에 퍼져 흡입기로 흡입될 위험이 있다”며 “석면 먼지가 폐 내에 흡수돼 축적될 시 ▲폐암 ▲석면폐증 ▲악성 중피증 등의 질병이 발생할 수 있다”고 전했다.

환경부의 ‘석면 관리 종합정보망 공시’에 따르면, 우리학교는 경희의료원 등을 제외한 대학교 용도의 건물 중 36개가 지난 5월 말일 기준 석면건축물로 확인됐다. 이는 ▲서울캠퍼스(서울캠) ▲국제캠퍼스(국제캠) ▲광릉캠퍼스(광릉캠) 건물을 모두 포함한다.

석면건축물이란 석면건축자재를 사용한 면적의 합이 50m<sup>2</sup> 이상인 건축물 또는 석면이 함유된 분무재, 내화피복재를 사용한 건축물을 말한다. 우리학교의 석면사용건축물 대부분은 천장 텍스에 석면이 사용됐고, 공학관과 같은 일부 건물의 경우 외벽에도 ▲밸라이트 소재 석면이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우정원과 음악대학관은 지하 배관에 ▲개스킷 소재 석면이 사용됐다. 총무관리처 관리팀은 “평화의전당

서울캠퍼스 석면 위해성 등급 ‘중간’ 공간	
건축물	위치
국제교육원	▲207호 ▲309호
호텔관광대학 신관	▲201호 ▲301호
구한의대학관	▲B104호 ▲B208호
제1의학관	▲337호 ▲616호 ▲617호 ▲802호
네오르네상스관	▲102호 ▲304호 ▲405호 ▲503호
중앙도서관	▲407호
미술대학관	▲300호 ▲504호
본관	▲119호

서울캠퍼스 석면 위해성 등급 ‘중간’ 공간

을 비롯한 일부 건물은 지하층에 석면이 남아있는 등 구성원의 실사용이 적은 공간에 석면이 존재한다”고 밝혔다.

석면건축물은 위해성 평가 기준에 따라 ▲낮음 ▲중간 ▲높음 총 3 단계의 위해성 등급으로 분류돼 관리된다. 위해성 등급은 석면건축물 내부에 석면이 포함된 공간을 총별, 위치로 세부 구분해 평가한다. 환경부 고시에 의하면 국제캠과 광릉캠의 석면건축물은 모두 위해성 ‘낮음’ 등급으로, 석면 함유 건축자재의 잠재적인 손상 가능성이 낮은 상태다.

그러나 서울캠의 경우 ▲국제교육원 207호 ▲호텔관광대학 신관 201호 ▲미술대학관 300호 ▲네오르네상스관 102호 등이 위해성 ‘중간’ 등급으로, 석면 함유 건축자재로 인한 잠재적 손상 가능성이 비교

적 높은 상태다. 위해성 ‘중간’ 등급은 ▲손상위험에 대한 원인 제거 ▲필요시 해당 공간 출입 금지 혹은 폐쇄 ▲손상에 대한 보수 조치가 요구된다. 또 환경부 시행 「석면건축물의 평가 및 조치 방법」에 따라 건축물소유주는 위해성 등급 ‘중간’ 이상인 석면건축자재가 있는 장소에 〈석면건축자재 경고 표시〉 경고문을 게시 또는 부착해야 한다.

이에 관리팀은 학내 석면건축물 위해성 등급 현황을 인지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관리를 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관리팀은 “현재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이 지정돼 석면건축물을 관리하고 있다”며 “6개월마다 석면 위해성 평가를 진행하고 2년에 1회씩 석면 비산 농도를 측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석면안전관리법」 제5장 23조에 따르면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해당 건물에 석면건

할 수 있어 학생들이 오가는 공간의 석면 철거는 현재로선 어려운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관리팀은 “예산이 가능한 선에서 석면 제거는 지속할 예정”이라며 석면 관리에 대한 계획을 밝혔다.

일각에서는 석면건축물과 관련해 ▲학내 석면건축물 현황 ▲석면의 존재 ▲석면의 위험성 등 석면건축물에 대한 고지가 미흡하단 지적이 나온다. 학내 구성원들은 이용 건물의 석면건축물 여부를 모르는 상태로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는 것이다. 정연수(아동가족학 2020) 씨는 “그 동안 오가던 건물이 석면건축물인지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며 “발암 등 생명에 직접적인 위험을 초래하는 석면이 존재한다면 구성원들에게 고지하는 등 세부 내용을 알려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관리팀은 학내 구성원 대상 석면 관련 정보 공개는 의무 사항이 아니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관리팀은 “대학 측에서의 석면 관련 정보 공개는 의무 사항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며 “각 부서별로 석면 위해성 평가를 시행한다는 내용의 업무연락만 송부하고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그러나 위해성 등급 ‘중간’ 이상인 석면건축자재가 있는 장소에서 나아가 석면의 전체 철거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석면 제거는 건물 이용과 철거 예산 등의 이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관리팀은 “석면 제거는 제거뿐 아니라 비석면 자재로의 교체작업도 필요해 이 과정에서 막대한 예산이 요구된다”며 “석면 철거는 출입을 통제한 상태로 해당 공간의 모든 기자재를 옮겨야 진행



## 2022학년도 2학기 학생설계전공 신청 안내

### “학생설계전공”이란?

학생 스스로 움·복합 학문분야 교육과정을 설계하고, 승인을 받아 이수하는 전공을 의미합니다. 특정 학문 영역에 제한되어 있는 전공 구성 및 교과목 개설의 한계를 넘어 다양한 학문 체험이 가능합니다.

### 1. 신청자격: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

- 가. 2학기 이상 이수하고(편입생은 1학기) 신청 당시 재학 중인 자(단, 수업연한초과자 신청 불가)
- 나. 신청 당시 33학점 이상 취득하고, 평점평균 3.3 이상인 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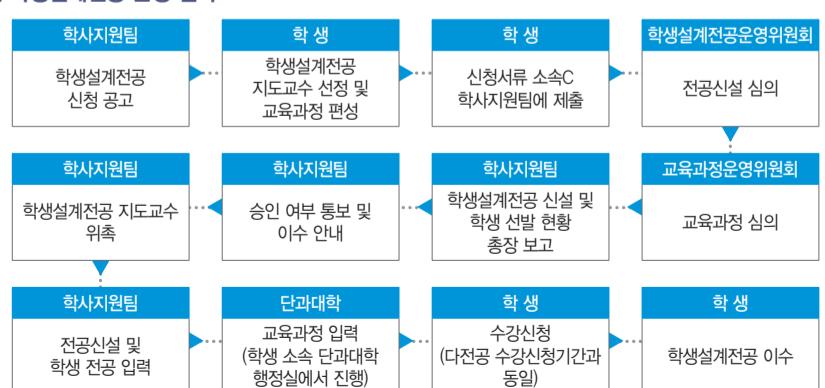
### 2. 신청기간:

2022. 06. 07(화) ~ 06. 20(월)

### 3. 신청방법: 아래 서류를 소속 캠퍼스 학사지원팀으로 제출

- 가. 학생설계전공 신청서 1부
- 나. 학생설계전공 학업계획서 1부
- 다. 학생설계전공 교육과정편성표 1부
- 라. 성적증명서 1부

### 4. 학생설계전공 운영 절차



5. 선발 결과 발표: 2022. 07. 15(금) 예정(학생 개별 통보)